



## 한원곤 강북삼성병원장

“제가 의사가 된 것은 아버님이 원해서가 아니라 바로 제자신이 하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바로 아버님처럼 외과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의과대학에 갔고 의사가 된 것입니다.”

한원곤 원장에게 있어서 외과가 비인기과로 전락했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못한다. 본인이 그렇게 원해서 된 외과의사이기 때문이다.

‘세도 3대’

‘세도’는 세브란스 외과를 일컫는 말이라고 한다.

강북삼성병원 한원곤 원장이 바로 이 ‘세도 3대’에 해당한다’

부친 한희철 박사와 한원곤 원장 자신 그리고 그의 아들인 한윤대씨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3대가 같은 임상과를 전공한 경우는 적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3대가 같은 대학을 나와 같은 임상과를 전공하는 경우는 결코 흔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아들 한윤대씨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 연세의대를 나와 세브란스 외과(현재 레지던트 1년차)를 지망하면서 이들 3대는 일약 유명해 졌

다. 바로 ‘세도 3대’의 기록을 수립하게 됐기 때문이다.

한원곤 원장의 부친 한희철 박사는 올해 90세로 1943년에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외과수련을 받은 후 귀국해 잠시 대학 병원들에 몸담고 있다가 61년부터 개원하여 40여년 동안 강원도 춘천에서 외과의원을 운영해 왔다. 외과의사로서 오직 한 길을 걸어 오는 동안 한 박사는 강원도 의사회장을 10여년 동안 맡는 등 그 누구보다도 활발한 의사회 활동을 보여 주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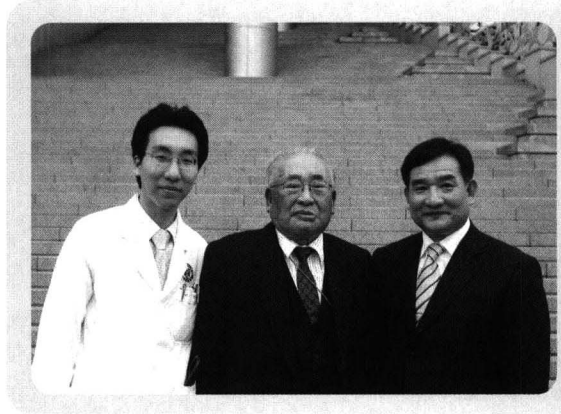
“제가 의사가 된 것은 아버님이 원해서가 아니라 바로 제자신이 하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바로 아버님처럼 외과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의과대학을

갔고 의사가 된 것입니다. 제가 철이 들 무렵부터 아버지가 수술하는 모습을 자주 훑쳐보곤 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도 멋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부터 외과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슴에 간직해 왔고, 그 꿈이 성사되어 오늘의 외과의사 한원곤이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서양의학이 우리나라에 들어 온 이래 ‘의술의 꽃’으로 불리어 오던 외과가 언제부터인가 필요로 하는 전공의 정원마저 채우지 못하는 비인기 기피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한원곤 원장 본인에게 있어서 외과가 비인기과로 전락했다는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못한다. 본인이 그렇게 원해서 된 외과의사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신이 외과의사가 되기까지의 역정을 말하는 그 모습에서 뿌듯한 자부심마저 엿보인다.

“자식사랑은 팔불출이라고 하지만 제 아들 윤대는 공부를 아주 잘 했어요. 윤대의 성적으로는 어느 대학이든 가지 못할 곳이 없었지요. 그런데 자신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나온 연세의대를 가겠다고 하고, 저 또한 흔쾌히 수락했지요. 그런데 대학졸업에 앞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상의하면서 외과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외과를 지망했던 때는 외과가 모든 의대생들이 선망하는 분야로서 인기가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안잖아요. 며칠 전에 열린 병원신임위원회에서 전공의 정원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11개 비인기과에 외과가 포함되었던군요. 이런 상황에서 아들이 외과를 지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 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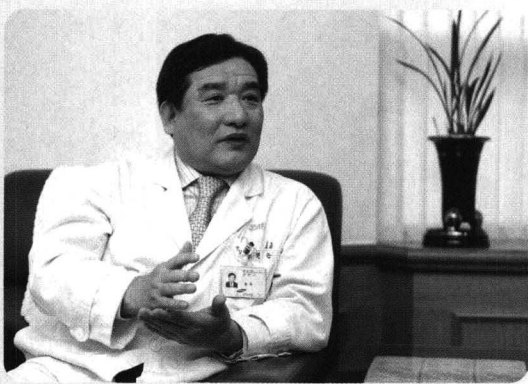


아들이 연세의대를 지망하겠다고 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외과지망 역시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따라 외과를 하고 싶다는 아들이 자랑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했지요.

한 원장은 지금도 나름대로의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다. 외과가 언제까지 비인기 기피과로 남아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드시 외과가 인기 절정을 누리던 이전의 영광을 되찾게 될 것”이라는 그의 말은 거의 신념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현재 외과가 처한 상황에 대해선 그 역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외과계열 전체가 너무도 침체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우리 외과는 언제고 이런 침체로부터 벗어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침체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지요. 바로 외과의사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외과의사 수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 수술을 받게 될 환자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지 않겠어요. 어떤 이들은 외국에서 외과의사를 수입하는 때가 올



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까지야 될리는 없지만 어쨌든 현재의 침체상태에서 빨리 벗어 날 수 있는 길을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는 “전반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의사들이 환자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소위 인기과로 불리는 임상과들보다 수련받기가 어렵고 수익마저 제대로 받쳐주지 못해 외과계열들이 이전에 갖고 있던 메리트를 많이 잃어버렸다”고 외과계열이 침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한다.

그리고 이렇듯 외과계열이 침체의 길을 걸어올 수밖에 없었던 데는 외과계 자체의 문제도 없지 않겠지만 근본적으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및 제도가 주된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외과계열은 수련과정이 다른 임상과들에 비해 월등히 힘이 듭니다. 그나마 과거 외과가 인기과였을 때는 그것만으로도 위안을 삼을 수 있었겠지만 요즘과 같이 비인기과로 전락한 상황에선 남달리 강한 의지를 갖고 있거나, 스스로 원해서 지망한 것이 아니라면 외

과수련을 감당해 낸다는 것이 결코 쉽다고는 할 수 없지요. 이것은 외과에 들어와 수련을 받다가 도중하차하는 전공의들이 간혹 나타나고 있는 점이 잘 입증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도중하차하는 전공의들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이 다른 인기과를 응시했다가 낙방해 할 수 없이 외과에 들어 온 경우가 많아요. 상대적으로 처음부터 외과의사가 되겠다고 들어 온 전공의들은 도중하차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제자신 전공의 면접을 볼 때 이 점에 유의해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그리고 수련과정이 힘들다는 것 이외에 앞서 지적했듯이 정책과 제도의 잘못으로 인해 과거 외과계열이 지니고 있던 메리트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그 메리트 중에는 수익도 포함이 됩니다. 수련과정도 덜 힘들고, 높은 수익마저 보장이 된다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 과거에 각광을 받던 외과계열을 비롯한 주요 임상과들은 수련의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비교적 수련과정이 수월하고 좋은 수익마저 보장되는 몇몇 임상과로 몰려드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료체계의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한 원장은 이렇듯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진료체계를 정립하는데는 학회와 병원협회를 포함한 의료단체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정부 스스로 제도 및 정책을 과감히 개선하고 수정해 나가는 길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대담 김성환) **KHA**